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호 【루계 제25527호】 주체106(2017)년 1월 1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캄보쟈왕국 국왕, 몽고인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칠레맑스-레닌주의혁명당, 칠레로동자농민당, 칠레《공산주의단결》조직, 칠레혁명적좌익운동,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정치비서국,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따니당 총비서, 캄보쟈룬씬빼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스딴아알람당 지도자,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인디아사회주의통일중심당(공산주의) 총비서,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공산당《로씨아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아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아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쏘련공산당소속 로씨아공산주의로동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벨카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제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프랑스혁명적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전국지도자,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대진보적인민당 전국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쿨룸비아, 페루, 에꽈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무,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희세의 정치가, 탁월한 령장이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비서국,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총비서가 전문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우리들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김정은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고 각하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2017년은 조선의 자유와 독립, 부강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령도자각하의 탄생 75돐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2017년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들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 그분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고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비범한 령도력을 다시금 높이 찬양하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이 온갖 도전과 난관을 짓부시며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지난해 8월말 북부지역을 휩쓴 최악의 재난을 불과 2개월이라는 기간에 가셔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세계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막강한 군사저위력과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현대적인 거리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을 가장 존엄높은 나라로, 조선인민을 가장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김정은각하의 선군정치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가져온 응당한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각하

우리들은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앞으로도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우월한 사상과 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대변하는 강국으로 위용떨치며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의 념원대로 반드시 통일강국으로 일떠세워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올해 8월 백두산지구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성대히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
《김정은장군과 오늘의 조선》참가자일동

2017년 1월 10일 카라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13호 주체106(2017)년 1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를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광호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전민총돌격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자강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당위원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력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예술단 배우들과 도예술선전대 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계시의 경공업공장들과 홍주청년4호발전소건설장, 학생가방공장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여러 부서 일군들은 들끓는 중요공장과 광산, 농촌들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즐선 풀어주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강계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 나간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면서 전력생산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홍주청년3호, 2호, 1호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겨울철조건에 맞게 발전설비와 구조물관리, 보수를 질적으로 하며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홍주청년4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도자체의 힘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림업관리국, 차가령세멘트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세로 또다시 떨쳐나 건설자재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고무추동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홍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 나간 일군들은 고기와 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 필요한 먹이문제를 비롯하여 해당한 대책들을 세워주면서 현대적인 김치공장과 샘물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장강군 읍협동농장의 두벌농사, 세벌농사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알곡과 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과학적인 농사작전이 펼쳐지고있다.

시, 군들에서는 농사에 힘을 넣으며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장공장, 식료공장, 기초식품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중요공장, 광산, 기업소당조직들과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새해벽두부터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초급당위원장 김영미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김명환, 직장장 한정금, 로동자함숙 책임자 황기복, 조사공 로명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정초부터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를 몸소 찾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좋은 이불들을 방방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로동자함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함숙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된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날에 하신 말씀대로 함숙생활이 입사하는 날에는 듯깊은 연회까지 마련하여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경공업부문의 중추공장으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대해같은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해나갈 불같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국산화된 설비부속품들과 기료품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질좋은 비단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이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공장을 로력절약형공장으로 전변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에서 마련해준 로동자함숙의 관리운영을 짜고들고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줌으로써 생산실적과 생활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벅찬 투쟁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름동안에 1 100여t의 석탄을 증산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서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에서는 16일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 100여t의 석탄을 증산하는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였다.

보름동안에 1 100여t의 석탄을 증산,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에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자랑찬 성과이다.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또다시 새로운 전투에 진입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탄부들속에 들어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와 그아래 여러 탄광의 일군들모두가 갱막장에 들어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1갱, 3갱, 청년갱, 5갱, 9갱 채탄막장들은 새해벽두부터 석탄증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다른 막장들보다 불리한 작업조건이지만 이곳 갱들의 탄부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무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였다.

3갱의 탄부들속에 들어간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자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1갱, 3갱, 청년갱, 9갱의 탄부들은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드높은 열의를 안고 매일 계획보다 1.3배의 석탄을 캐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천성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 나팔소리가 온 탄전이 떠나갈듯이 높이 울려퍼지고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속에 석탄생산은 시간이 갈에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새해 정초부터 1갱, 3갱, 8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힘찬 돌격전을 벌려 석탄생산계획을 매일 1.3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다. 10갱, 11갱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캐내였다.

평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새해 첫 전투시작부터 련속천둥,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기세좋게 달려나갔다. 1갱, 2갱, 3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련일 실적을 확대해나갔다. 5갱, 6갱, 7갱, 8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앞선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계속 늘이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 공장, 동, 인민반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련한 1 000여t의 과철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제전략목표수행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면서 강철전선지원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급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들이 앞장에 섰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탐사관리국, 해주신발공장, 해주화학공장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이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수산관리국,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공장, 대학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철수집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급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들에서는 지난 13일 하루동안에만도 수백t의 과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해주시, 청단군, 배천군, 송화군, 은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과철수집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짧은 기간에 수백t의 과철을 모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과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기업소에서—본사기자 김종훈 씀

'일으키고있다'—황해제철련합

밭들고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기층당조직인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업의 승리이라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관통되여있는 불변의 진리이다.

지난해 12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장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이 우리의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우리 당의 전투력이고 초급당을 강화하는데 전당강화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초급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

그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초급당일군이라는 영예와 긍지, 그이와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던 대회참가자들…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회, 당 제7차대회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소집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의의깊은 대회합이였다.

못 잊을 그 나날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당대회 못지 않게 중시하시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몸소 대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무엇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던가.

초급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원수님 계시기에 우리의 혁명대오는 일심단결로 굳건하고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승리떨치리라는 확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초급당을 강화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고 당의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초급당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내 조국의 벅찬 승전을 호흡할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로 끝없이 달린다.

우리 당을 강철같은 초급당조직들을 가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잊을수 없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내오도록 하시고 그 위치와 임무, 초급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이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주체63(1974)년 1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교전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기층당조직강화의 밝은 앞길이 환히 내다보이고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과 용기로 가슴끓이던 리당비서(당시)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는 리당비서들을 믿고 우리 나라의 4 000분의 1의 령토와 4 000분의 1의 주민, 4 000분의 1의 재산을 맡겼다고, 당중앙위원회는 또한 나라의 4 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국가주권이 옳게 행사되도록 지도할데 대한 책임을 리당비서들에게 맡겼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은 다 기름이 철철 흐르는 룡마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고, 문제는 이 자리에 모인 리당비서들이 기름진 룡마를 타고 어떻게 달려나가는가,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아무리 좋은 룡마라도 주인이 똑똑치 못하여 탈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말을 탈줄 모르는 사람이 타다가는 말에게 채우거나 말에서 떨어질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당비서들이 룡마를 타고 달릴만 한 능력이 없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습니다. …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리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과 리당비서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준칙을 제시하신것은 초급당사업발전에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초급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기층당조직건설의 만년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초급당강화를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시고 당의 기층조직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기층당조직을 튼튼히 무리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층당조직이 튼튼한 당은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하지 않지만 기층당조직이 약한 당은 모래우의 루각처럼 쉽게 무너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당사업에 남아있던 제패식사업체계와 방법을 때지화하시고 새로운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시였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도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항일유격대식으로 혁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과의 사업을 현행을 기본으로,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초급당조직들이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당, 행정배합을 잘하며 사회주의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령을 치며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조건에서 협의회를 열고 말공부나 하는것은 전투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군들은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업에서 기본알맹이를 틀어쥐고 신속성있게 조직하고 전개해나갈줄 알며 인민들이 믿고 따르며 존경하는 신망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온 나라의 초급당일군들이 행정일군들과 마음을 합치고 현장에서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고무하고 이끌었다. 이 벅찬 현실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나날이 공고화되였다.

중앙당일군들을 비롯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초급당, 리당의 책임일군으로 파견하시여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무슨 말로 칭송할수 있으랴.

그이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비상히 강화된 초급당조직들이 있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들이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우리 당을 강철같은 초급당조직들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시고 초급당위원장들을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기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은 다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별히 중시하시는것은 초급당이다.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초급당을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집행되며 당정책의 운명이 초급당의 역할에 달려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사업전반에 구현되여온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기본으로 하여 당조직들의 사명과 임무, 당생활지도의 목적과 방향도 새롭게 밝혀주신 우리 원수님의 당건설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초급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초급당은 포병구분대의 화력중대와 같으며 우리 당을 백절불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지름길은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사상!

그것은 초급당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과학적인 당건설사상이며 우리 당을 전투력이 강한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원숭의 기치이다.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초급당사업의 고귀한 지침들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초급당위원장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의 친필과 감사문도 보내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후덥게 적셔준다.

제생을 갈망하면서도 잘못 산 지난날때문에 고민하는 청춘남녀를 혈육처럼 품어주고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준 한 초급당일군의 소행을 값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

《어머니손길로, 어머니마음으로 고금성, 차호심동무를 따뜻이 품어준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김 정 은

2013. 7. 11》

일군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사망과 정, 믿음을 담아 보내주신 친필을 심장에 새겨넣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초급당조직들이 당정책옹위전, 인민복무전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굳건히 보위해나갈수 있었다.

지난해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는 세상에 없는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과 사회주의대륙모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과 비약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최고의 성과, 최상의 전변을 이룩하며 대승리를 안아왔다.

이 기적적승리는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전투적초소에 일시에 화답하여 천만군민을 총궐기시켜나가도록 이끄신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드팀없는 신념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된 강력한 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있는 혁명의 전초기지로 진변시키신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전투의 승패는 당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초급당조직들의 피끓는 숨결이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드높은 기백이며 초급당조직들의 돌격속도이자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심장에 새아박은 전당 초급당위원장들의 가슴가슴은 혁명열, 투쟁열로 끓고있다.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순간도 잊지 않고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리라!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분신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올해에도 승리의 룡장춘을 부르고야말 전당 초급당위원장들의 신념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단위의 사업성과는 그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의 사업기풍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사업기풍에서 기본은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가고있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두가지 주목되는 문제를 보기로 하자.

자기를 희생할 각오

올해 련합기업소앞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섰다. 그런데 생산조건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다.

당위원회는 당이 제시한 석탄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모든 일군들이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화선에 나가 선구자적역할을 하는데서 찾았다.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안고 단위사업을 앞재를 메고 이끌어나가자. 이것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자신에게 먼저 내린 돌격구령이였다.

올해 정초에 가족들과 함께 명학탄광 3갱 채탄3중대막장을 찾은 당위원장 박철호동무는 준비해가지고온 수십벌의 작업복과 후방물자들을 탄부들에게 넘겨준 다음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대였다. 동발나무를 날라오기도 하고 탄차도 밀면서 한시간도 아니고 여덟시간동안 꼬박 일하느라니 작업복은 화락하게 젖어들었고 온몸이 나른해졌다. 그러나 힘든줄 몰랐다.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탄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다면 설사 막장에서 쓰러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는 비상한 자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휴식참에는 탄부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아 탄광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오는 과정에 터득한 앞선 작업굴진방법도 말해주며 채탄공들을 계발시키였다. 석탄생산을 위해 애를 쓰는 당책임일군의 일본새에 감동된 채탄공들은 분발하였다. 그들은 그날 련합기업소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이 소식은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전투장한복판에 뛰여들어 일판을 벌렸다.

1월초 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탄광의 당, 행정 및 근로단체일군 200여명이 막장에 들어갔다.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담당한 채탄중대와 굴진소대막장에 일제히 들어간 일군들은 새벽교대작업을 하는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수십리나 되는 막장길을 신발창이 닳도록 걸으며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고 운반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고있을 때에는 탄차를 밀면서 탄부들을 불러일으키는 선동나팔수가 되기도 하였다.

그무렵 득장탄광기계공장 초급당위원장 리인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자기 단위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것은 단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이 아니라고 보았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기풍

일군들이 단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야 한다. 이것이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의 투쟁기풍이다.

올해의 석탄생산목표를 일별, 월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자면 더 많은 동발나무가 있어야 했는데 그 보장이 제대로 따라서지 못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우에서 동발나무를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는것은 단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기 단위 사업을 책임지자면 당일군들부터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고 본 당위원회에서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정초에 련합기업소안의 1 000여명 일군들과 지상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동발나무끌기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칼바와 톱이 든 배낭을 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채벌지를 타고앉았다. 그 앞장에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부위원장 강청석, 명학탄광 지배인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안의 당, 행정 및 근로단체일군들이 서있었다.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발나무를 직접 끌면서 당일군들이 벌려나가는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은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발동된 가운데 하루동안에만도 200여㎥의 동발나무가 생산되였다. 하여 석탄증산의 돌파구가 열리고 련합기업소는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화력탄 보장단위들가운데서 석탄생산실적이 가장 높은 단위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다.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할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우는소리를 하고 자리지킴이나 하였더라면 과연 이런 혁신이 일어났겠는가.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동무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가고있는가.》

모든 일군들은 시대의 이 엄숙한 물음에 불같은 실천과 높은 실적으로 떳떳이 대답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대담하고 과학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대동강축전지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해당 일군들이 충분한 론의를 거쳐 세운 국산화목표는 별로 나무랄데가 없는것 같았다. 지난해의 시험생산성과에 토대하여 측전지적자주조에 필요한 어느 한 주요자재를 수입이 아니라 국내원료로 보장할것을 예견한것, 연분해기의 절대려과기들을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제작할것을 예견한것 등 목표에 쪼아박은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공장의 실정에서 현실로 전환시키기 간단치 않은것들이였다. 하지만 초급당위원장 원철동무는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올해 공장의 생산활성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국산화목표, 바로 이것이 그의 기준이였다.

초급당위원장은 해당 일군들이 국산화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도록 보다 적극 떠밀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였다.

그를 위한 사업에서 초급당일군은 두 측면에 힘을 넣었다.

하나는 일군들이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국산화목표수립에 달라붙게 하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자기자신이 창조적인 사색을 심화하면서 밑거름이 되는것이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년사학습과 해설탐화 등을 통하여 일군들속에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지휘성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현실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을 세우는데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고 주체69(1980)년 10월 공장에서 생산한 측전지시제품을 몸소 보아주시며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비롯하여 공장의 오늘을 내다보시며 벌써 수십년전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간곡한 유훈들을 그들이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쪼아박도록 하였다.

국산화목표수립을 대하는 자세와 립장이 달라졌다.

일군들은 그것을 당중앙결사옹위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뚜렷이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어기고 떨쳐나섰다.

초급당일군은 목표수립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면서도 자신이 직접 대중속으로, 현실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혁신적인 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때로는 야간전투가 벌어지는 격리판직장과 수지함직장을 비롯하여 국산화의 불길이 제일 세차게 타올라야 할 전투장들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대중의 지혜가 합쳐지도록 하였다.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가정방문을 이어가는 길에서도 지난 시기 공장에서 수입자재를 국내자재로 대신했던 사실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사색을 진지하게 심화시켜나갔다. 때로는 해당 일군들과 함께 현판단위인 화학기지들에 전화를 걸어보며 공장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발동시킬 타산을 해나가기도 하였다. 이런 준비밑에 열린 협의회에서는 국산화목표수립을 위한 론의가 전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벌어졌다.

초급당일군이 내놓은 혁신적인 안을 비롯하여 창발적인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나왔다.

그 과정에 수지함생산과 격리판생산에 필요한 자재들도 국내의 원료로 해결하기 위한 목표들이 더 설정되게 되였다. 말하자면 올해에 공장의 생산활성화가 철두철미 자력자강에 의하여 담보되게 하는 통이 큰 국산화목표가 수립된것이다.

국산화목표이자 단위의 비약의 높이이다.

다시 세워진 국산화목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려는 이곳 당조직의 비상한 의지를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멸사복무와 일군의 관점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자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취재는 이 물음으로 시작되였다.

그에 대한 공장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대답이 참으로 인상깊었다. 그것은 새해 정초의 행군길에서 그들이 찾은 교훈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지금도 공장의 일군들은 지난 1월 2일 분탄직장의 석탄건조로앞에서 있었던 일을 깊은 자책속에 돌이켜보군 한다.

그날도 초급당위원장 김광철동무의 하루일과는 생산현장을 돌아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원료직장이며 소성직장을 거쳐 분탄직장에 들어선 초급당일군이 석탄건조로앞을 지날 때였다. 로동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화실을 들여다보면 초급당일군은 문득 굳어졌다.

화실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이 로동자들의 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이제는 습관이 되였다는 로동자들의 말은 초급당일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해주었다.

지금껏 종업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부해오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럴수록 절세위인의 절절한 음성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무한한 세계가 가슴에 뜨겁게 미쳐와 얼굴을 돌수 없었다.

현실은 종업원들을 위한 자신의 마음에 티가 앉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뒤이어 현장에서는 공장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소집되였다.

초급당일군의 자기비판으로 시작된 협의회는 참가자들모두에게 지난 기간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의 마음에 티가 앉으면 인민을 보는 눈이 그만큼 흐려지게 되고 종업원들의 얼굴에 그늘이 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종업원들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중차대한 문제로 보는 눈을 가지자는 이를 계기로 현실을 보는 일군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 종업원들을 위한 일감들이 생겨나고 즉시에 집행하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분탄과 소성직장로동자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석회석광산의 작업반휴게실들의 온도보장문제,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문제 …

이러한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높은 생산실적을 낳게 하였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려는 일군이라면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대중을 대하여야 한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바로 이런 일군을 부른다.

본사기자 환 영 철

초급당일군의 호소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

기수의 보람

올해일거리들을 계획하는데 열중하던 길주군당위원장 김원철동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일선로동자구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바삐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수도관과 밸브, 조절변을 비롯한 자재들을 자동차에 싣는것을 잊지 않았다.

얼마쯤 가느라니 차창으로 작업장의 전경이 비껴들었다. 수도관자리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이 언땅을 파헤치느라 법석이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군당위원장은 작업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그 삽을 이리 좀 주오.》하며 삽을 덥석 잡는 풍채좋은 사람에게 어망결에 작업도구를 내맡기던 주민은 놀랐다. 군당위원장이였던것이다.

뒤미처 달려온 사무소일군들도 얼른 곡괭이며 삽을 하나씩 찾아쥐고 군당위원장의 곁에 섰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작업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무드기 쌓인 흙무지에 삽을 푹 박으며 한숨 돌리는 군당위원장에게 사무소일군이 흥분에 겨워 말하였다.

《오늘 작업실적이 배로 높았습니다. 이 기세면 래일까진 땅파기를 전부 끝낼것 같습니다.》

땀을 훔치는 군당위원장의 가슴속에는 이름 못할 그 무엇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그것은 앞재를 메고 내달리는 기수의 보람,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일군의 보람이였다.

먼저 새긴 자욱

뜨락또르의 기세찬 동음이 아침고요를 깨뜨리며 울려퍼졌다.

시내쪽으로 향하는 뜨락또르에는 해주시 장방리당위원장 리명호동무와 몇명의 농장원들이 타고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명절휴식마저 미루고 아침일찍 뜨락또르에 몸을 싣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전날 저녁이였다. 안해와 함께 2t의 자급비료를 포전에 실어내고 집에 들어온 리당위원장의 생각은 줄곧 한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기세면 래일까진 땅파기를 전부 끝낼것 같습니다.》

그는 이 기세면 래일까진 땅파기를 전부 끝낼것 같습니다.》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

최고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현장기술지도

사리원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사리원시 협동농장들에서의 새해농사차비가 주목된다. 눈길을 끄는것은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현장기술지도가 모든 포전에서의 최고수확을 담보할수 있게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 사실이다.

모판단계에서부터 다수확을 담보하기 위해 짜고든 작전을 놓고보자.

올해 시에서는 콘모재배방법이 전체 논면적에 도입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지난해 모든 농장들에서 시험적으로 진행한 콘모재배방법도입과정을 분석해보았다. 의문되는 점이 있었다.

왜 같은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과 해서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한t이상의 논벼가 증수되였겠는가.

포전을 밟아가면서 파고들수록 모판밑거름을 주로 생산한 유기질비료의 질이 이목을 끌었다. 재료들의 량과 배합비률도 다른 농장들과 동일했다. 차이점이라면 무식질함량이 기준대로 정확히 보장되는 재료를 유기질비료생산에 리용한것뿐이였다. 반면에 일부 단위들에서는 국부적이기는 하지만 유기질비료생산의 량적지표에 왼심을 쓰면서 이 문제에는 낯을 적게 돌린 결과 합격징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지 않은 콘모들이 포전으로 나가는 편향이 있었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상반되는 두 현실을 놓고 과학농사에서 기술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새기게 되였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한해농사의 전과정이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실속있게 도와줄 때 모든 농장들이 다수확을 내고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구상을 관철할수 있었다.

물론 벼모기르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밑거름생산의 질보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궤도에 올라섰다고 볼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면서 순간이나마 해이되여 요구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앞선 영농방법을 애써 도입한 보람이 없게 될것이였다.

일군들은 자책을 느꼈고 심각한 교훈도 찾았다. 따라서 농업전선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적요구라는 관점에서 현장기술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였다.

협동농장들에서의 콘모재배방법도입준비에서는 근본적인 질적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모든 단위에서 생산하는 모판밑거름의 질이 다수확콘모를 기를수 있게 과학기술적으로 담보되였다. 무식질함량은 밑거름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그에 따라 벼모의 뿌리발육과 잎, 아지치기능력이 좌우된다고 볼수 있다.

일명 모판농사라고도 일컫는 콘모재배에서 이것은 심중한 문제였다. 이로부터 담당농장들에 나간 일군들은 애어린 벼모들의 초기뿌리발육을 촉진시키는데서 밑거름의 질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농장원들에게 더욱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켰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콘모재배와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꼴들어 마련하고 그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지역별, 농장별, 작업반별로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갔다. 또한 무식질함량이 정확히 보장된 재료를 리용하여 모판밑거름을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일군들이 사무실이 아니라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농장원들과 어울려 진행해나간 현장기술지도는 응당한 결실로 이어졌다.

모든 농장원들이 한줌의 재료를 확보하고 한무지의 밑거름을 생산해도 자기들의 재꾼한 랑심을 엿볼수 있도록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애썼다. 결과 각 농장들에서의 모판용유기질비료생산과제는 책임적으로 결속되였다. 뿐만아니라 시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나오는 버린 물질로 벼모의 생육에 알맞는 토양산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포전들에서의 다수확을 모판에서부터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모든 포전마다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자면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무침땅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중의 하나가 효능높은 미생물비료를 더 적극적으로 생산리용하는것이였다.

사실 땅속에도 적지 않은 량의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들어있다. 문제는 그것들을 농작물이 흡수리용할수 있도록 풀림성형태로 전환시킬 방법을 찾아내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화학적방법보다 생물학적방법 즉 활성이 강한 미생물로 발효퇴비를 생산하여 리용하는것이 더 실리적이다.

지난해 효능높은 미생물비료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수백kg, 최고 한t의 논벼를 증수한 만금협동농장의 경우만이 아니였다. 척박한 모래자갈포전에서 정보당 최고 12t의 수확고를 기록한 문천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강냉이농사경험은 가치있는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임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었다.

바로 여기에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알곡을 증산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도가 있는것이다.

신심을 가진 일군들은 확신성있게 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20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외에 2t의 미생물비료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종균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기 위해 일군들이 밤이 깊도록 뛰였고 그 결과 각 농장들에서의 비료생산실적은 시작부터 눈에 띄게 올랐다. 이것은 합격징표를 갖춘 콘모들이 생산포전에서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다수확담보로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들끓는 현실에서 늘 일감을 찾아쥐고 현장기술지도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간 일군들은 다른 농사차비들도 뚜렷한 목표밑에 작전하고 지휘해나갔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폐속깊이 새기고 과학적인 현장기술지도로 새해농사차비에서부터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는 이곳 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본새는 진취적이다.

본사기자 김 성 일

흙보산비료생산을 실속있게

김책시 동흥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며칠전이였다. 김책시 동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흙보산비료생산현장을 돌아보던 관리위원장 김춘봉동무는 뒤지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어느 한 무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크고작은 무식토덩어리들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무식토를 보드랍게 가루내여 리용하는것은 기술학습때마다 거듭 강조된 문제가 아닌가.)

관리위원장은 생각되는것이 있어 농장원들과 함께 일손을 잡았다. 김이 분분 나는 거름무지에 걸이대를 꼭꼭 박으며 그는 곁에서 일하는 농장원에게 왜 흙보산비료를 만드는가고 물었다.

농장원은 벌씬 웃으며 흙보산비료는 땅을 걸게 하고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토양에 준 비료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흙보산비료 한t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의 함유량에 대해서까지 단숨에 외워나갔다.

그를 긍정해주고난 관리위원장은 다른 농장원에게 흙보산비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 농장원도 자신있다는 듯 침착한 어조로 흙보산비료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대답을 마지막까지 다 듣고난 관리위원장이 이번에는 왜 무식토를 보드랍게 가루내여 리용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방금전까지 씩씩하게 대답하던 농장원은 물론 다른 농장원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뒤더수기를 긁는것이였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며 관리위원장은 무식토덩어리를 손에 집어들고 설명해주었다.

흙보산비료가 일반거름보다 높은 효과를 내는것은 풀풀림성 후민산함량과 질소, 린, 칼리을 비롯한 풀림성영양원소함량이 훨씬 높기때문이다. 바로 이 풀풀림성후민산함량과 풀림성영양원소함량은 무식산재료의 종류와 함께 중요하게는 립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즉 립자가 작고 보드라울수록 후민산과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충분히 추출되여 흙보산비료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 …

부끄러운듯 무식토덩어리들을 손에 쥐여보는 농장원들을 보며 더 큰 가책을 받은 사람은 관리위원장자신이였다.

당의 뜻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면 농장원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배워주어야 한다. 그런데 수박겉핥기식으로 기술학습을 진행하였으니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농장원들이 어떻게 실천에 정확히 옮길수 있겠는가. 실천에 도움이 되는 산지식을 배워줄 때 농장원들모두가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이 될수 있다.

그날 찾은 교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자각한 일군들은 농장원들에 대한 과학기술학습을 보다 심도있게 조직진행해나갔다. 그저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원리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주었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실과 작업반선전실에서만이 아니라 포전에서도, 집으로 오가면서도 다수확을 위한 과학농사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농장원들이 서로 경험과 교훈을 나누도록 하였다.

오늘의 과학농사시대는 산지식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을 가진 농장원들의 일솜씨가 달라졌다. 모르고 쌓은 흙보산비료원료무지와 원리를 깊이 파악하고 만든 흙보산비료는 확실히 색갈도 냄새도 달랐다. 합격품이였다.

계기와 장소가 따로 없이 산지식을 습득해가며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가는 이들이 안아올 자랑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본사기자 장 은 영

흙깔이전투로 들끓는 협동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회양군안의 협동벌이 흙깔이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올해의 풍요한 가을을 눈앞에 그려보며 새해 행군길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포전마다 정보당 200t이상의 갈매흙을 실어내고있다. 지금의 속도로 계속 내달리면 얼마든지 1월중에 흙깔이전투를 결속할수 있다고 한다.

헐치 않은 작업량이다. 하지만 이 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올해의 다수확을 담보할수 있다.

풍요한 가을을 내다보며

회양군에서

갈매흙에는 질소, 린을 비롯하여 농작물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200t정도의 갈매흙은 20t의 거름 맞잡이이며 보통 100kg의 화학비료와 맞먹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군안의 포전들은 대부분 물이 잘 빠지는 등 토양구조에서 일면의 결함이 있다. 하지만 갈매흙은 이러한 토양의 물보유능력을 높여주고 화학비료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등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토양환경을 마련해주는 측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다.

군이 지난 시기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좋은 농사결실을 거둘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갈매흙깔이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간데 그 비결의 하나가 있다.

새해에 군일군들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흙깔이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였다.

군에는 갈매흙매장량이 풍부하다. 특히 강돈지구에는 품위높은 갈매흙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다. 운반조직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흙깔이전투의 승패가 달려있었다.

이것을 예민하게 포착한 군일군들은 원토장에서 파낸 갈매흙을 기본도로까지 운반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포전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운반거리가 먼 농장들에 대해서는 군급기관, 기업소들의 륜전기재들을 동원하여 실어나르도록 해당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웠다.

그 집행결과가 즉시즉시 총화되였다.

온 군이 흙깔이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불만 한것은 군안의 모든 부림소들을 한마리도 빠짐없이 이 사업에 돌이밀고있는것이다. 기본도로까지 끌어낸 갈매흙이 소달구지에 실려 각 농장의 포전들로 운반되였다. 흙깔이전투실적이 시작부터 무척 올랐다. 강돈협동농장이 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농장의 청년들이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흙깔이전투에 용약 떨쳐나 일자리를 폭폭 내였다. 그야말로 농장의 흙깔이전투장은 청년판으로 흥성이였다. 분조별, 농장원별사회주의경쟁이 드세차게 벌어져 농장은 군적인 흙깔이실적에서 앞서나갔다.

읍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의 가족들까지 떨쳐나 흙깔이전투를 다그치기 위해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읍지구의 카두인민반들에서도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애쓰는 농장원들과 한전호에 서서 많은 량의 갈매흙을 운반해주었다. 소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들을 갈매흙운반에 총동원하고있는 선대협동농장의 실적도 눈에 띄게 높아갔다.

흙깔이전투에서 앞장선 이런 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추적전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군적인 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탕면한 흙깔이전투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있는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에 의해 올해의 다수확은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다.

본사기자

2배의 실적을 낸 립체전

영광군 관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후 찬바람을 맞으며 영광군 관수협동농장의 포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격동된 심정을 안고 다수확을 위한 농사차비를 더 잘 갖출 방도를 찾아 나선 김유민, 최윤식, 홍형철동무를 비롯한 농장 일군들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벼단실어들이기를 끝내는것과 동시에 논에 대한 거름실어내기를 결속하여 숱한 품을 절약하면서도 전반적인 지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포전을 다수확포전으로 만들자면 무엇을 더해야 하겠는가?

일군들은 포전을 돌아보며 론의하는 과정에 흙깔이를 중시하였다. 농장의 적지 않은 논에는 모래기가 많았고 다락논들은 진흙땅이였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자면 반드시 흙깔이를 하여 토지를 개량해야 하였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 흙깔이를 진행하여 정보당 소출을 적지 않게 높인 사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있었다.

문제로 되는것은 흙운반거리가 먼것이였다. 일부 논들에 흙깔이를 하자면 수천m의 거리를 오가야 하였던것이다. 정보당 수백t의 흙깔이를 해야 하는 조건에서 여기에만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집중시킬수는 없었다.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인 흙깔이실적을 올릴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하였다.

관리위원장은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성과의 비결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흙깔이와 포전정리를 동시에 내미는 립체전을 전개하자.

그가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된데는 오래전부터 흙깔이와 동시에 포전정리를 진행하여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었기때문이다.

농장에는 같은 필지인데도 높이차이때문에 논두렁에 의해 갈라져있는 다락논이 적지 않았다. 이 다락논들에는 진흙기가 많았다. 이로부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진흙기가 많은 높은 곳의 다락논에서 흙을 파내여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있는 모래기가 많은 다른 포전에 펴군 하였다. 이렇게 하면 원토장에서 흙을 운반하여 포전에 펼 때보다 거리를 훨씬 줄일수 있었다.

이때 이들은 논두렁을 그냥 놔두었다. 지력이 높기때문이였다. 다락논에서 열의 논과 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흙을 파내간 다음에는 지력이 높은 논두렁을 헐어서 펴놓았다.

결국 두개 포전이 한개 포전으로 되였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가지 갈이방법으로 흙이 뒤섞이게 한 다음 거름을 많이 내여 지력이 떨어지는것을 막았다.

결국 운반거리가 먼 포전에 대한 흙깔이를 지장없이 내밀면서 포전도 정리하는 2배의 효과를 본셈이였다.

이렇게 하면 우선 논의 토양알갱이조성을 개량함으로써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좋은 조건을 보장할수 있었다. 그리고 포전을 정리하니 농기계를 리용하는데도 좋고 비료나 살초제치기를 비롯한 농사일을 하는데도 여러모로 유리하였다. 더우기 논두렁만 한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 이것 또한 좋은 일이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올해에도 이 사업을 본때있게 내밀기 위하여 통이 크게 작전하고 밀고나갔다.

특히 농장원들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홍동원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으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이것은 날마다 높아지는 농장의 농사차비전투실적으로 나타났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제대군인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제대군인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당원들이 혁명초소는 바뀌였어도 마음속의 군복만은 벗지 않고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제대군인당원들이 영농전투에서 한몫단단히 할수 있게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것과 함께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들에게 믿직한 일감을 대담하게 맡겨주고 일자리를 내도록 적극 떠밀어주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모두를 농장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고있다.

당조직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고무된 농장의 제대군인당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답게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원 화

청년분조원들이 다수확운동에서 앞장서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양덕군 온하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적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끼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알마즈베크 아딤바예브각하

비슈께크

나는 귀국에서 화물수송기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피해후과가 하루빨리 가셔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월 17일 평 양

산지통나무생산계획 매일 초과수행

림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산지통나무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통나무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들끓는 산판에 전투지휘처를 정한 림업성의 일군들은 능숙한 지휘와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로동자들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해벽두부터 기세좋게 내달려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매일 평균 125%로 수행하고있다. 탄광의 로동계급과 함께 석탄생산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덕천, 덕현, 신양, 북창경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엄격한 계획규률을 세우고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매일 계획보다 수십m³의 통밭나무를 더 생산하고있다.

자강도림업관리국의 로동계급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10일현재 월생산계획의 40%계선을 돌파하였다. 지난해에 생산조건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화평림산사업소와 강계경목생산사업소에서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내밀어 일별계획을 각각 1.3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산하 장진림산사업소, 검덕, 수동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생산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실속있게 하여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함경북도의 연사, 연상림산사업소와 량강도의 유평, 갑산림산사업소의 로동자들도 당의 림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진군의 보폭을 넓혀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적극 지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에서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도급기관,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해 정초부터 2만 8 000여t의 도시거름과 1만 4 800m²의 비닐박막, 49만 2 000여대의 활창대 등 28종에 1만 4 500여점의 중소농기구와 영농물자를 화물자동차들과 프락또르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에 실어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에서는 모든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에서 새해 첫 농촌지원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특히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정원군 원화협동농장에 질좋은 거름을 실어냄으로써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도부역관리국, 도검찰소,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한결같이 떨쳐나 많은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실어보내였다.

도에서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에서 새해 첫 농촌지원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특히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정원군 원화협동농장에 질좋은 거름을 실어냄으로써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도부역관리국, 도검찰소,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한결같이 떨쳐나 많은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실어보내였다.

대동군, 북창군, 온산군, 회창군, 대흥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는 많은 거름과 함께 비닐박막, 활창대, 버팀대,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덕천시, 정원군, 신양군, 증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화물자동차들에 질좋은 도시거름과 무식토를 싣고 나가 쌀로써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었다.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새해농사차비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황해북도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농촌지원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4일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만t의 질좋은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실어다주어 새해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들의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 기어이 농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결의를 안고 농촌지원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도의 일군들은 시, 군협동농장들의 농사차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였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앞세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 더 많은 거름원천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간 일군들은 농촌지원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도급기관들에서는 품을 들여 성의껏 마련한 질좋은 거름을 싣고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과 은파군 강안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 나갔다.

사리원시에서는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 일군들이 앞장에서 농촌지원작전을 통이 크게 하여 많은 거름을 마련하였다.

대성동사무소의 일군들은 인민반들에 나가 주민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수십t의 질좋은 거름을 장만하였다.

서흥, 린산, 연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들에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근로자들과 농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질좋은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벌들에 실어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체육강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축 구 련 맹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두개의 나이별월드컵보유로 2016년을 《조선축구의 해》로 장식한 크나큰 민족적긍지가 새해의 행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고있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온다.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경기장을 달리던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장한 모습이, 그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승리의 금메달이.

그 환희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조국의 영예가 누리에 빛나는 격정의 시각을 위해 바쳐온 헌신의 낮과 밤들이 떠올라 감격의 눈물을 쏟고쏟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축구련맹의 일군들이였다.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을 주체조선의 체육정신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축구인재로 키우기 위해 세계적인 축구기술발전추세와 관련한 자료연구로 지새우던 하많은 밤들도, 국내에서 진행된 어느 한 경기에서 맵시있는 공다루기모습을 보여준 나어린 소녀축구선수를 찾아 검덕길에 대한 추억도 그 눈물속에 다 어려있었다.

조국이 안겨주는 축하의 꽃보라속에 잠긴 선수들의 행복한 모습에 가리워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수들은 잊지 않고있었다.

지난해 두개의 월드컵을 안아오는데 기어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넘리 알려진 승항심선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친딸처럼 사랑해주고 떠밀어준 축구련맹 일군들의 진정이 큰 힘이 되였습니다.》

새해의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또다시 박차를 가해갈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축구련맹을 찾았다.

청사안에 들어서니 긴장한 전투분위기가 흐르고있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밤늦도록 사무실들의 불이 꺼질줄 모른다는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더욱 분투하는 련맹의 전체 성원들의 투쟁기풍을 안아보게 하였다.

분둑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조선녀자축구팀 공격식축구를 과시》라고 평했던 외신보도내용이 떠올랐다. 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앞으로만 전진하는 과감한 공격정신이 축구련맹 일군들의 일본새에서도 엿보였다.

련맹책임일군은 새해의 첫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의 승리는 새해의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도약대로 됩니다.》

련맹에서는 지난해의 사업성과와 경험을 깊이있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축구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부서별계획들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특히 일군들이 체육단들에 직접 나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격식》사업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처장 윤정수동무는 올해에 진행되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와 국제축구련맹 2017년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선수들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부서의 실정에 맞게 일군들이 국가종합축구단에 더 자주 나가 훈련과 생활지도를 짜고들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세대교체와 순환이 그 어느 부문보다 빠른 체육부문에서 선수후비육성사업결과에 따라 종목의 발전전망이 좌우지된다고 볼수 있다. 축구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축구선수후비육성을 담당한 부서성원들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웠다.

그들은 우선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선 평양국제축구학교의 사업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학생들의 기초기술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축구실기과정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교육자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문제, 지도교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처장 장철준동무는 우리에게 지난해 진행된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4살미만 소녀지역별선수권대회(동아시아지역)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다름아닌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또한 부서에서는 올해에 각도에 새로 조직하게 될 축구학교들과 관련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예정된 기일안에 학교건물과 훈련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각 도체육국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청소년체육학교들과 소학교, 중학교의 축구반들에서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축구학교학생으로 선발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머지않아 각 도들에 훌륭한 모습을 갖춘 축구학교들이 일떠서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지난해의 월드컵경기대회장들에서 리저오른 찬탄의 목소리를 되새기게 하였다.

련속 우승컵을 쟁취한 조선녀자축구는 미래가 매우 밝다.

조선녀자축구는 후비력량측면에서 세계의 정점에 올라있다.

…

이것은 국제축구계가 주목한 우리 나라 선수후비양성체계의 우월성을 웅변적으로 시사해주고있다.

기술지도를 책임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장 장봉용동무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부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청춘의 혈기가 용솟음치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부서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결심을 피력하였다.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듣는 이야기마다 우리 축구발전의 미래를 확신케 하였고 새해에는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칠 이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안아보게 하였다.

축구종목이 일떠서야 체육강국의 전망이 더욱 환히 열리고 인민들은 축구경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뻐한다.

새해에는 또 어떤 금메달소식이 우리 인민들에게 전해질것인가.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이들의 힘찬 발걸음소리는 당의 손길따라 승리의 결승주로를 향해 질풍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체육인들의 애국의 박동소리, 체육강국의 래일을 향해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이다.

세계패권을 향하여 전진의 보폭을 더욱 힘있게 내짚고있는 축구련맹 일군들의 투쟁은 만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강 효 심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도입하여

평 안 북 도 태 권 도 선 수 단 에 서

평안북도태권도선수단 일군들과 감독들이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된 공훈체육인 김항심동무와 같은 태권도, 바둑강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투쟁으로 올해의 첫달부터 세차게 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단장 여인호동무를 비롯한 선수단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과 산중훈련기지, 육체훈련장 등을 잘 꾸려놓고 전도유망한 특기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선수단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김항심선수처럼 조국의 명예를 떨칠수 있는 전도유망한 태권도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 모든 감독들이 개별적선수들의 체질과 심리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고있는것이다.

이곳 태권도감독들속에서 자기가 맡은 선수들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탐구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서영일감독의 훈련지도경험이 신심을 더해주고있다.

몇해전 서영일감독은 자진하여 한대범선수의 훈련지도를 맡아나섰다.

리유는 키가 작아도 동작이 날랜 선수의 우점을 잘 살리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감독은 합리적인 훈련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키가 큰 선수에 비해 중력중심이 낮기때문에 작이한 정황에서 몸균형유지가 좋은 이 선수의 특성을 살려 이동속도를 높이면 주동적으로 공격과 반공격기회를 마련하여 좋은 경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이로부터 서영일감독은 한대범선수가 작이한 전회동작들을 익히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감독은 틀과 맞서기동작을 완전히 체득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회동작들을 익혀 한대범선수의 공간지각을 발달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 한대범선수는 무단한 이동에 의한 공격과 반공격의 결합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특기기술들도 소유할수 있었다.

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와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태권도개인맞서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드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 경기들에서 한대범선수와 맞다든 선수들은 모두 키가 큰 선수들이였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배심있게 자기의 특기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전문가들과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영일감독의 경험은 모든 감독들에게 개별적선수들의 체질과 심리적특성에 알맞는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할 때 얼마든지 전도유망한 태권도명수들을 키워낼수 있다는 자신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있다.

훈련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바둑감독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있다. 바둑선수는 수읽기능력이 높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형세를 정확히 판단한데 기초하여 공격할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바둑강자로 될수 있다. 리성재동무를 비롯한 바둑감독들은 실력있는 바둑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한 방도를 훈련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데서 찾았다.

선수단에서는 훈련과 경기과정에 적용한 수법들을 가지고 자료기지를 구축하였으며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선수들이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공고히 하면서 다른 선수의 좋은 경험을 적극 따라배울수 있게 하였다. 결과 단위시간동안에 선수들의 바둑기술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평안북도태권도선수단의 일군들과 감독들의 사업경험은 체육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전도유망한 체육강자들을 키워낼수 있는 지름길은 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되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압 록 강 체 육 단 에 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여 체육단들중에서 맨 선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넘친 현지지도를 받았으며 체육부문의 첫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영웅, 인민체육인, 2중올림픽경기대회금메달수상자를 배출하였을뿐만아니라 체육영웅과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쟁취한 금메달이 많은 압록강체육단에서 지난해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기세드높이 새해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압록강체육단을 더욱 훌륭히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인민보안성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책임일군들이 수시로 나와 제기된 문제들을 즉시에 해결해주어 건설속도를 최대로 높이게 하였다. 건설의 중요성을 자각한 전투원들은 철야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5개의 종목별훈련장들과 15개의 침실,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훈련관과 실내축구관, 인공잔디축구장을 새로 꾸려놓았다.

이어 인민보안성에서는 먼저 수십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건설하여 산중훈련기지주변의 주민들을 새 집으로 입사시키고 수많은 토량을 처리하여 5개의 인공잔디축구장을 새로 더 꾸릴수 있는 지반닦기를 결속하였으며 인공잔디를 비롯한 자재를 전부 확보하였다.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 들어와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면서 체육단의 청사건설 및 개건보수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는 동시에 산중훈련기지에 종합체육관 및 육체훈련관, 침실, 식당 등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압록강체육단 일군들은 이런 앙양된 분위기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후방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부업지에 나가 자체로 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후방기지들을 더욱 늘여 선수들에 대한 영양공급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근 200명의 명예청호소유자들과 선수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도 정상화하고있다.

기술부단장 송준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종목별로 세계패권자를 끊임없이 배출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2중올림픽경기대회금메달수상자를 키워낸 책임감독 리호준동무와 같은 관록있는 여러 감독,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높이 세운 훈련계획수행과 선수들에 대한 몸상태조성과 심리조절, 영양공급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심장깊이 새긴 압록강체육단의 전체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창립 70돐을 맞는 올해에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고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금메달에 비낀 고결한 애국심

조선국제체육려행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체육열기를 고조시키자면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엄마전 우리는 체육성의 한 일군으로부터 말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것과 동시에 체육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도맡아 해결해주고있는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한 림정심선수는 훈련의 나날 자기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 힘과 용기를 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중에서도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욱 잊혀지지 않는다고, 올림픽경기장에서도 그것을 되새기며 큰 힘을 얻어 승리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말은 사업으로 하여 드바쁜 속에서도 자주 훈련장에 찾아와 우리 력기선수라고 다정히 부르며 성의껏 마련해온 물자들도 안겨주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훈련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던 려행사일군들과 종업원들,

선수들을 위한 축하공연무대도 펼치며 주체조선의 체육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더욱 깊이 새겨주던 그 진정,

그것은 그대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는 물론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리의 미더운 력기선수들이 자랑찬 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적극 고무추동해준 또 하나의 힘의 원천이였다.

하다면 려행사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그 뜨거운 진정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사장 리연수동무의 이야기에서 찾을수 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달려야 한다는 자각을 가다듬느라면 정말 아까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을 더욱 위해주고싶었으며 자랑찬 경기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사업에서 높은 성과가 이룩된것처럼 기뻤습니다.》

알고보니 조선국제체육려행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적극적인 후원사업으로 우리 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련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 자랑도 안고있었다.

날과 달, 해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바쳐온 조선국제체육려행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그 진정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무엇을 새겨안았는가.

훈련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풀어준것도 고마왔다. 이보다 먼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귀중한 청춘시절을 바치고있으며 우승의 금메달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더욱 가슴깊이 되새긴 체육선수들이였다.

최근년간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와 미래과학자거리건설 등을 성심성의로 지원하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였으며 오랜 기간 다박솔초소 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과 평천영예군인일용품공장을 돕기 위한 좋은 일도 많이 하고있는 려행사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마음이 뜨겁게 어려 더욱 빛나는 조국의 금메달,

애국충정의 낮과 밤은 창립 20돐을 맞이한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려행사일군들과 종업원들뿐아닌 온 나라 인민의 순결한 애국심에 받들려 새해의 행군길우에 더욱 환희롭게 솟구쳐오를것이다. 체육강국의 래일을 소리쳐 부르는 승리의 금메달이.

본사기자 지 혁 철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희 천 일 용 품 생 산 협 동 조 합 에 서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의 유훈관철투쟁기풍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세부가 있다. 《이만하면》이란 말이 없어진 이야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조합이 거둔 성과는 대단하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수십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며 투쟁하고있는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언제인가 관리위원장이 지표를 또 한가지 늘이자는 안을 제기하였을 때였다. 이것은 시안의 주민들속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결심한 지표였다.

그런데 이 안을 놓고 일군들의 생각은 같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줴어짜면 이만하면 만세를 부를만도 한데 지표를 늘인다는것이 웬말인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초급당일군은 생각이 깊었다.

물론 조합에서 지표별계획을 수행하고있는것만도 간단한 성과가 아니다. 지표를 더 늘이지 않아도 우리를 탓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다면 지금의 성과를 놓고 조합에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됐다고 볼수 있겠는가.

초급당일군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자자구구 새길수록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울려나오군 하는 《이만하면》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종업원들이 보인 자리에서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물론 우리에게 제품을 몇가지 더 만들라고 요구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유훈관철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세계이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만하면》이란 말이 나올수 있겠는가.

거둔 성과에 잠시나마 만족해있던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때부터 《이만하면》이란 말이 종적을 감추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뼈속깊이 새기고 장군님의 유훈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결사관철하자!

온 조합에 이런 신념과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 앞장에는 초급당위원장 김남철, 관리위원장 김영희, 책임기사 김영철동무들이 서있었다.

대오의 앞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밤리는 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결사관철의 의지를 더욱 굳게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또 한가지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생산지표가 늘어나 시안의 주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기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성과가 아무리 커도 그 누구에게서나 《이만하면》이란 말은 다시는 들을수 없다.

바로 《이만하면》이라는 자리에 《결사관철》이 바위처럼 들어앉았기때문이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비약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상을 얼마나 생동하게 강조해주는 세부인가.

본사기자 최 영 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앙골라대통령을 만났다

김현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2일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조선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되여야 한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올해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창립 71돐경축

청 년 중 앙 예 술 선 전 대 공 연 진 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창립 71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가 1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시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무용 《우리 식이 좋아》, 선동극 《복수하리라》, 남성4중창 《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 녀성5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력사는 영원하리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한 녀성독창 《그이 없인 못살아》, 혼성중창 《금방석》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혼성4중창과 합창 《청춘송가》, 재담과 경음악편곡 《승리의 지름길》, 《돌과 하라 최첨단을》, 《우리는 만리마기수》를 비롯한 종목들마다에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열혈청춘들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차넘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를 이루고 당중앙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가 합창시 《수령결사옹위는 청년동맹의 제일생명》, 남성기타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조선청년행진곡》, 《불타는 소원》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언제나 곧바로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가 될 김일성, 김정일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새해 행군길에 활력을 부어주는 사회정치활동

수도의 청년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새해전투로 들끓는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전기기술대학 등의 청년대학생들은 새해벽두부터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가 전력생산자들에게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울려가고있는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를 비롯하여 철도운수부문에 나간 평양철도종합대학, 평양기관사기술대학 학생들은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로동계급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과학교육의 혜인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드높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교과서생산전투로 끓어번지는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에 나간 청년대학생들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일손을 도와 일터마다에서 열정과 함만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의 청년대학생들도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전투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다채로운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청년대학생들의 전투적이며 참신한 사회정치활동은 뜻깊은 새해 행군길에 떨쳐나선 수도근로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자위적행사는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지금 세계는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법석 끓고있다.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한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가지는 의미는 실로 크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정당한 자위적행사이다.

미국은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을 1차적인 공격목표로, 전복대상으로 삼고 정치, 군사, 경제적압박책동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왔다.

특히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정책화하고 괴뢰들을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의 돌격대로 내세우면서 세기를 이어 핵공갈을 가해왔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울 흉계를 꾸미였을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지명하고 괴뢰들과 함께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각종 핵전략자산들과 침략전쟁들에서 악명떨친 특수전무력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키리졸브》, 《독수리 16》,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미제침략군의 《B-1B》, 《B-2》, 《B-52》를 비롯한 핵폭격기들을 미국본토로부터 괌도로 이동배비하고 핵폭탄투하연습을 련일나게 벌린것은 우리에 대한 극히 로골적인 핵위협소동이였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핵위협소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알아들을만큼 경고도 하고 충고도 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괴뢰들은 그 모든것을 귀동으로 흘려보내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핵전쟁에 미친 호전세력의 광기를 짓뭉개버릴 방도는 오직 하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적행사로서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의 이 정당한 대응조치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들은 자중, 자숙할 대신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데 얼을 올리였다.

적대세력들은 그 누구의 《숨통을 조이는 초강도제재》에 대해 떠들어대며 인민생활필수품들과 어린이들의 놀이감까지 제재항목으로 금정하였다. 미국과 괴뢰들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은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공간까지 강탈하기 위한 가장 잔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과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의 일환이다.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조건에서 우리는 원쑤들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정정당당한 조치에 대해 무력대고 걸고들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부장관은 《북의 위협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느니,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서든 《북에 대한 제재압박은 지금과 같이 계속》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괴뢰들도 미국상전의 수작질에 맞장구를 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다. 괴뢰외교부와 통일부패거리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느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제재압박에 대해 비린청을 돋구고있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추적감시》를 떠들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새 미행정부와 《북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북압박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정신없이 돌아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날강도들의 과렴치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장장 수십년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린 범죄자들이 도리어 저들의 망동을 정당화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근본적으로 말라진 우리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아직도 판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경제적봉쇄와 군사적압박에 계속 매달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히스테리적인 광기는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압박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강력에 의거하여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핵무기고도화를 진척시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하였다.

미국과 괴뢰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권리행사는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우리의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국제사회가 격찬하는 《조선의 정치력학》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압력을 가할수록, 핵무기로 위협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의 의지와 타격력은 더욱 강해진다는것이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쑤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은 우리 주체조선의 혁명적대응방식이다. 우리에게는 내외호전광들의 핵위협소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겨레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핵억제력을 계속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응당한 권리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세계는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하는 주체조선의 정의로운 핵마치가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 효 진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원천

지금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적승리와 눈부신 성과들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자그마한 흔들림도 없이 목소리는 더 높고 자세는 더 곧바르며 발걸음은 더욱 기운찬 공화국인민들의 굳센 모습앞에 미래가 숙어진다.》, 《이북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필승의 강국》,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이북은 필승불패이다.》…

남조선도처에서 올려나오는 이러한 찬탄의 목소리들은 그대로 일심단결의 위대한 력사를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서프라이즈》는 《북의 미래는 창창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제국주의우두머리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조선의 강대함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렇게 썼다.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나라, 바로 이것이 조선의 강대함의 원천이다.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로 따르는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하나로 뭉친것이 조선의 진짜힘이요, 진짜모습이다.》

신문은 계속하여 남녘겨레만이 아니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우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과 민족,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기에 주체혁명위업은 백승의 한길로 변함없이 전진할것이며 일심단결의 위대한 력사도 계속 흐르게 될것이라는것이 남녘인민들의 확신이다.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잘 알고있는 남녘인민들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새겨안으면서 그이의 숭고한 풍모를 끝없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평양에서 진행된 군중시위의 장엄한 모습을 록화물로 보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분의 위인적풍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진정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저 하늘에서 지구우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누리에 빛날것이다.》

부산의 한 정치학교수는 《민중을 위해 로고를 바치시는것을 락으로 여기시며 민중의 행복한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자하신 영상은 진정 민중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민중의 참다운 령수, 민중중심의 애민정치가, 구세제민의 태양의 모습이다.》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서울의 한 주민은 《지금 세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민중사랑의 정치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분께서 다녀가신 곳곳마다에는 민중사랑의 대화원이 현실로 꽃펴나고있으며 이북 민중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럼없는 인민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칭송하는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있다.

남녘인민들은 《일심단결, 혼연일체는 이북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그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사상과 령도풍모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여 이북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이며 통일강국건설은 확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민심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변신놀음

박근혜역도와 함께 특대형추문사건을 빚어낸 장본인들인 괴뢰보수패당이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모면하고 파멸의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해 파렴치한 변신놀음을 벌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역도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극도에 이르자 이대로는 재집권을 실현할수 없다고 타산한 비박계패거리들이 그 무슨 《진정한 보수》를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집단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이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보수정당을 꾸며내고 한동안 민심의 동향을 살피던 비박계패거리들은 얼마전 당명칭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비박계패거리들은 《바른》이라는 단어에는 《올바르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등의 내용이 함축되여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자들이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당간판을 내거는 방법으로 박근혜역도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민심을 저여해온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몸빼기를 하여 재볼장을 보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수법이 과연 통할수 있겠는가.

남조선 각계에서는 지금껏 박근혜의 손발이 되여 온갖 죄행을 다 저지른 추악한 공범자들의 뻔뻔스러운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는 비난이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비박계패거리들이 저들의 당명칭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하자마자 인터네트에는 《진짜바른 정당》, 《바보당》, 《침바른 정당》, 《장어기름바른 정당》, 《박근혜내란공범당》 등이 당을 야유조소하는 별의별 흉측한 이름이 다 올랐다. 결국 민심을 끌기 위해 벌려놓은 비박계패거리들의 당명칭화장놀음은 오히려 각계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말았다.

그럴수밖에 없는 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의 반인민적정책을 극구 비호두둔하며 매국반역에 얼을 올린 괴뢰보수패당의 죄악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있다. 《새누리당》을 휘쳐나온 탈당파패거리들이 저들의 범죄행위를 산송장이 되여버린 청와대마귀할미에게 몽땅 넘겨씌우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듯이 수염을 내리쓸며 재집권에 광분하는것을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바른정당》의 시정배들이 저들의 정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그 무슨 《민중주권의 실현》이니, 《재벌개혁》이니, 《무패와 특권이 없는 사회》니 하는 희떠운 소리들을 헤쳐대며 동물린 민심을 달래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으나 인민들의 눈은 절대로 속일수 없다. 박근혜역도와 한패당이 되여 제 할것은 다한 비박계패거리들이 이제 와서 《바른정당》이니 뭐니 하며 탈바꾸기에 나선데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너무 역겨워 치를 떨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당명칭이나 바꾼다고 반역패당의 본색이 달라지겠는가, 《바른정당》이라는것이 과연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고 하면서 보수패당의 민심기만놀음에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다.

비박계패거리들은 《새누리당》에 둥지를 틀고있을 때부터 박근혜역도와 적극 공모결탁해왔다. 비박계의 우두머리인 전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박근혜역도의 《대통령》당선을 위해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돌아친 사실과 역시 비박계를 대표하는 류승민이 박근혜의 측근졸개가 되여 역도의 반역정치를 앞장에서 실행해온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런자들이 약삭바르게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저들은 청와대안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듯이 놀아대지만 인민들은 반역무리의 서푼짜리둔갑술에 속아넘어가지 않고있다.

비박계패거리들이 당명칭을 《바른정당》으로 뜯어고친것은 보수《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책동에 따른것이다.

이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마치도 친박계를 동원한 박근혜역도의 패거리정치의 피해자인듯이 행세하면서 권력욕에 환장한 반기문과 일부 야당세력을 끌어들여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정권》을 다시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얼마전 류승민이 어느 한 모임에서 반기문이 반드시 자기들에게 올것이라느니, 그 무슨 《승리》니 하고 허세를 부리고 김무성이 반기문의 《대통령》선거출마에 《신보수》가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나발질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재집권야망에 사로잡힌 비박계패거리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것은 민심을 기만우롱하는것 뿐은 식은죽먹기로 여기는 저들의 본성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까마귀가 흰색을 칠한다고 하여 백로로 될수 없듯이 당간판이나 바꾸어단다고 하여 괴뢰보수패당의 사대매국적이고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체질이 달라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괴뢰보수패당이 《바른정당》의 간판밑에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민심을 엄어넘기며 재집권기도를 실현하려고 발광하는것은 썩어빠진 반역《정권》을 청산하고 새 정치를 지향해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민심기만행위도 서슴지 않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나서는 괴뢰보수패당이야말로 청와대마녀와 한바리에 실어도 가을지 않을 가증스러운 역적들이다.

《바른정당》패거리들은 각계의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력사의 심판대에 스스로 나서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신》의 후예와 잔당들을 뿌리채 제거하지 못하여 당한 오늘의 수치와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패거리들의 더러운 민심기만책동에 철추를 안겨야 한다.

본사기자 라 영 국

집중적인 초불투쟁을 벌려나갈 의지 표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1일 서울에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정권》의 공범자들과 무역자들이 《대통령》행세를 하면서 갖은 악행을 계속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결정이야말로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 정치세력이 박근혜탄핵안가결이후 초불민심과 떨어져 벌써부터 《대통령》선거에 몰두하고있으며 박근혜세력의 반격은 이미 현실화되여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2016년의 마지막시기 박근혜의 악정을 반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 지역과 종교, 직업과 계층, 정치적지향의 차이를 초월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밝혔다.

광장의 초불민심이 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2017년의 투쟁은 박근혜와 함께 그의 체제를 청산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견문은 올해에 반드시 세상을 바꿀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축각퇴진, 조기탄핵의 그날까지 광장에서 초불을 들것이다.

공범자 황교안의 국민사찰, 공작정치체제를 그대로 들수 없다.

박근혜공범자들을 완전히 처벌하고 죄과를 청산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울것이다.

재벌체제를 비롯한 특권질서, 불평등과 불공정, 배제와 차별로 가득찬 《헬조선》을 근본적으로 개혁할것이다.

이를 실현하고 1월 조기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21일을 전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집중초불의 날로 선포한다.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개인의 출세만을 위한 길을 걸어온 반기문

남조선언론이 글 게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이 8일 반기문의 죄행에 대해 쓴 한 작가의 글을 실었다.

글은 반기문이 1970년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공무원으로서 관료생활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그가 독재《정권》에 부역하는데 대한 아무런 량심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개인의 승진과 출세만을 위한 인생을 걸어왔을뿐이라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남북관계의 새시대가 개척되던 김대중《정부》때에도 반기문은 실무적으로만 존재하는 관료였다고 주장하였다.

승진과 출세욕에 남달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있는 반기문이 로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유엔사무총장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였다고 하면서 글은 그 이후의 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유엔에서 그는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있다.

그때에 나온 말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총장》이라는것이다.

소신을 내세우지 않고 원만함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붙은것이 리해가 될만도 하다.

반기문을 다음기 《대통령》으로 보는 사람들중에 유엔사무총장을 하며 얻은 경험이 통일문제나 《북핵문제》를 푸는데 기여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실적을 보면 안다.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에 이르렀다.

리명박, 박근혜《정부》들은 남북의 모든 대화통로를 끊어버렸다.

이 와중에 반기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관한 철학도 노력도 보여준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리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장단을 맞추었을뿐이다.

글은 계속하여 지금 남조선은 부정부패청산, 경제위기극복, 민생문제해결, 항국화 및 분렬동해소 등을 다음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앞에서 본 《국정》과제중에서 반기문이 제일 잘할것이라고 할수 있는것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기문은 아니다.》라는 결론만 나온다.

그는 민생과 동떨어진 외교관생활만 한 사람이다.

경제와 민생을 알수도 없는 사람이다.

파쑈악법에 의한 무지막지한 폭압을 규탄

남조선의 《세계일보》에 의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가 12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공안당국이 《로동자의 책》대표를 《리적표현물》판매혐의로 구속한것은 황교안이 보수세력을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감행한 파쑈적폭거라고 단죄하였다.

검찰이 대중교양시적까지 《리적표현물》로 규정하는 무지함을 보였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이 국민의 의식을 속박하고있다고 하면서 학문과 사상, 량심, 출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보안법》은 폐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70년 넘게 쌓여온 폐단을 청산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탄핵정국을 역전시키려는 발악적책동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날로 더욱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사회와 반성은 꼬물만큼도 없이 저들의 죄악을 봉땅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 사태를 역전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지난 11일 괴뢰법원에서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법정에 끌려나온 전 괴뢰청와대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은 파렴치하게도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모조리 부인하였다.

이자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진 초시기 《나는 시키는대로 일한 하나의 관리》였을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것은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실토하였다. 안종범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비롯하여 최순실의 재단들에 각종 특혜를 주도록 기업들에 압력을 가한것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고 자백하였다. 이것을 립증하는 사실자료들은 지금도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다.

얼마전에도 박근혜가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소유하고있는 회사에 어느 한 광고회사를 넘기도록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이 론박할수 없는 자료로 립증되였다.

그런데도 안종범은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모든 사실을 발딱 뒤집었다.

지어 추문사건과 관련한 박근혜의 지시내용들을 자필로 적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검찰에 내놓았던 자기의 업무수첩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것이므로 증거로 될수 없다고 우기였다.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추문사건수사와 관련한 각자의 대응을 모든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행동으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버티기로 나오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최순실 역시 자기의 각종 범죄행위들을 무작정 인정할수 없다고 우기고있다. 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자기는 관여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으며 검찰조사자료들은 검사가 위협하면서 자백을 강요한데 따른것이라고 강변했다.

아무런 공직도 없는 한갖 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이 박근혜를 손락에 그러쥐고 정치, 경제, 문화지어 군사분야까지 마음내키는대로 주물러댔다는것은 더는 부정할래야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이췰란드에서 남조선으로 돌아올 당시만 해도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던 최순실은 뒤처리를 다했으니 이제는 걱정할것이 없다는 배짱으로 실로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년은 보다싶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사실마저 허위와 외곡으로 조작된것이라고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있다.

최순실과 안종범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강짜를 부릴 때 박근혜역도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의 극비문건들을 넘겨준 장본인인 전 괴뢰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은 아예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불어넣은 입김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언론들은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안종범과 최순실의 파렴치한 태도와 정호성의 재판불출석을 두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 사태를 역전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이라고 평하고있다.

이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였던 범죄행위들에 대해서까지 모조리 부정하며 죄가 없다고 나자빠지고 지어 조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걸고드는 박근혜, 최순실일당이야말로 협잡과 강도질에 이골이 난 망나니들도 울고갈 천하의 파렴치한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하다면 박근혜역도는 지금 어떻게 처신하고있는가.

박근혜역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악질보수분자들로 무어진 변론대리인단을 내세워 아무 죄도 없다고 뻗쳐대고있다. 한편 청와대에 기자들을 불러들여 《나는 잘못이 없다.》, 《정책적판단에 따른것이다.》라는 파렴치한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있다.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들면서 역도와 최순실의 공모결탁과 범죄를 립증하는 각종 사실들이 련속 드러나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이런 속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역도의 《세월》호 7시간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럴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역도의 변론대리인단이 두주일째나 시간을 질질 끌며 꿍꿍거리다가 할수 없이 제출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혹에 대한 답변서는 남조선 각계가 입을 모아 비난했듯이 온통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로 얽힌 너절한 협잡문서이다. 박근혜역도의 변론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세월》호대참사가 일어난 당일 집권자가 《구조에 적극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자료가 실제로 없기때문이다. 결과 《헌법재판소》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괴뢰역도의 대리인단측은 속수무책으로 사태만 지켜보면서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패당은 모략에 이골이 난 저들의 본색을 다시금 드러내고있다. 역도의 변론대리인단패거리들이 《초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역《정권》퇴진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심산으로 고리타분한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사실 그리고 특검과 검찰의 수사자료를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최순실과 그 졸개들, 청와대패거리들이 계속 오만하게 놀아대면서 범죄를 감추려고 발광하는 배후에는 다름아닌 박근혜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정국을 역전시켜 권력복귀의 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 청와대안방주인의 흉심이라고 폭로하고있다.

현 사태는 박근혜역도와 그 패거리들이 초불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명줄을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만고죄악을 지지른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파멸을 당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할것이다. 괴뢰역도가 권모술수에 매달리며 뻗치면 뻗칠수록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는 더욱 무서운 징벌의 활화산으로 터져올라 반역의 무리를 쟁그리 불태워버릴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김정은조선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 진행

《김정은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8일부터 10일까지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현지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 그리고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슈, 인도네시아, 인디아, 뉴질랜드,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에 참가자들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공동서기인 자베드 안싸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력사의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경이적인 사변들과 전화위복의 기적들을 련이어 안아오신 그이의 세련된 령도는 만사람을 경탄시키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이 앞으로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라고 천명하심으로써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의지를 온 세계에 보여주시였다.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의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여 불멸의 혁명사상을 인류사상사의 최고높이에 올려놓으시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비상히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는 위인의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을 투렷이 명시한 불멸의 대강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는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의 일대번영기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는 사회주의조선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울 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일 일어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각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위대한 품이 있기에 혈연의 정으로 뗄여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 인민의 품과 리상이 꽃펴난 사회주의선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김정은각하는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시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는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절세의 위인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신 그이를 모시여 사회주의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대국으로 세계만방에 위용떨치고있다.

거대한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일으키며 만리마속도로 비약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현실은 조선인민에게 김정은각하의 령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이라는 철리를 새겨주고 사회주의만복을 누릴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슴가득히 안겨주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그대로이신 김정은각하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떠나서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과 조선인민이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이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영광, 더없는 행복으로 된다.

우리는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행사들에 적극 참가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할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랍지역준비위원회들에서 보내여온 축하편지들이 소개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라호마와띠 수카르노부뜨리와 피터 우즈,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네일 피츠제랄드, 타이준비위원회 위원장 쏭치트 클랄,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 메이몬드 퍼그슨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을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강철의 전위대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도전과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백승만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치를 철학적사색으로 정화되고 결심이 확고하며 신념이 투철하고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정치로 찬양하였다.

그들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5년간 모든 분야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을 상세히 렬거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위용떨칠것이며 김정은조선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뜻깊은 해인 2017년을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진보적인민들이 함께 경축할데 대한 국제준비위원회 호소문을 리행하는 사업에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나라별준비위원회들이 앞장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행동강령이 랑독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행 동 강 령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조선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력사적인 분수령의 해로 될 2017년이 밝아왔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는 국제적인 경축활동을 활발히 벌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데 대한 국제준비위원회 호소문에 호응하여 《김정은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로 지역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은각하를 탁대한 배짱과 강철의 의지, 인민사랑의 정치와 세련된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반제자주력량의 강력한 보루로 튼튼히 다져나가고계시는 21세기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과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올해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8월의 국제대축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강령을 발표한다.

1.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지역 및 나라별로 조직진행하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분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과시해나갈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든 준비위원회들은 뜻깊은 올해의 경축활동을 의의있게 시작한 그 기세로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백두산절세위인들께 다함없는 흠모심을 담아 지성어린 선물들과 꽃바구니, 축전, 축하편지들을 올리고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할것이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4월에 그분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관한 지역인터네트토론회를 최상의 수준에서 조직진행할것이다.

이와 함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숭고한 덕성을 칭송하며 조선의 현실을 소개선전하는 도서와 문예작품을 집필, 창작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2.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을 틀어쥐고 통일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들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지역의 모든 준비위원회들은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에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선의 자주적통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광범히 소개선전할것이다.

이와 함께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로선을 틀어쥐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는 활동들도 활발히 진행해나갈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는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와 긴밀히 련계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담화, 성명들을 발표하여 조선통일의 절박성에 대한 국제적여론조성에 기여해나갈것이다.

3.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회합으로 성대히 조직진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나라별준비위원회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에 제시된 백두산위인칭송비를 건립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이다.

지역의 모든 준비위원회들은 8월에 진행되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 울려 축전의 성과적진행에 이바지할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는 국제준비위원회 호소문과 공보문을 다시금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세계 모든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과 긴밀히 련대하여 백두산위인칭송열풍을 더욱 고조시켜나갈것이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2017년 1월 10일 카라치

중동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진행

중동평화에 관한 국제회의가 15일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70개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5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회담을 재개할데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이스라엘의 폭행과 정착촌건설을 끝장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회의에서 최종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을 종식시키고 독립국가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와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적대행위를 규탄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가 10일 미국방장관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방장관이 마치도 로씨야는 수리아에서 테로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만이 테로분자들과 싸운것처럼 무떠댄것과 관련하여 그가 나라를 헛갈린것 같다고 조소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무력의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수리아에서 테로분자들과 싸웠다고 하면서 그는 사실상 미국이야말로 전혀 기여한것이 없으며 오히려 테로분자들을 도와주는 비렬한짓을 하였다고 단죄하였다.

※ ※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1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글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적대행위를 규탄하였다.

9일 미국이 로씨야공민들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마그니쯔끼명단을 늘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오바마정권의 대외정책이 정화를 파괴하는 무분별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매일 매시각 미국이 대로씨야제재를 확대하고 수리아의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있는데 대한 소식을 듣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둔한것이며 저들의 대외정책에 해독적인 영향을 가져다줄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미국과 서방의 외교관들과 공식인물들을 비롯하여 오래동안 각이한 급에서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된 반로씨야선전으로 종당에는 뛰르끼예주재 로씨야대사가 살해되였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바로 그러한 선전에 참여하고 로씨야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에게 있다고 단죄하였다.

민족적단결을 호소

챠드대통령 이드리스 데비 이뜨노가 최근 민족적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새해에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비약을 일으키자면 정치세력들이 단결하여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모든 공민들은 민족의 영예, 국가의 리익을 중시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나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교육발전에 힘을 넣을 립장 천명

니제르대통령 마하마두 이쑤푸가 최근 교육발전에 힘을 넣을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의 질이 낮은것이 심각한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민족어발전과 교원양성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개발, 교원자질평가, 학생들의 실력평가기준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성인교육을 발전시켜 문맹퇴치사업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우려

몽골대통령 싸히아긴 엘베그도르쥐가 11일 한 회의에서 수도의 대기오염상태가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울란바따르의 대기오염수준이 간과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수도에서 초래되는 대기오염의 80%가 많은 사람들이 고무와 비닐 등을 망랑 불태우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고 한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기절약사업

인디아에서 최근 전기절약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델리주의 남부지역에 있는 20만개의 가로등을 전력소비가 낮은 레드등으로 교체하였다.

앞으로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의 전등들도 레드등으로 바꿀것을 계획하고있다.

교육발전성과

꼬뜨디봐르에서 교육발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25개의 학교와 3 930여개의 소학교교실을 건설하였으며 7 000명의 교원을 양성하여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67개의 소, 중학교와 종합대학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 한다.

산림조성사업 활발

라오스에서 지난해 산림조성사업을 활발히 벌려 약 2만 4 000ha의 면적에 나무를 심었다.

정부는 올해에 3만 7 000ha 이상의 면적을 수림화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언제 건설

스리랑카의 중부지역에서 11일 언제가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준공식이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언제가 건설됨으로써 오랜 기간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던 어떤 지역들에 먹는물과 관개용수가 공급되게 되였다.

밀렵반대투쟁 강화

짐바브웨에서 최근 밀렵반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1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밀렵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한 결과 전국적으로 440명이상의 밀렵자를 체포하고 250여개의 상아를 압수하였다 한다.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을 주장

유엔주재 인디아상임대표가 최근 분쟁방지와 평화유지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를 개혁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가 공정성을 잃은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로 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안보리사회는 또한 결정채택에서 실지에 있어서 극소수만을 대변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의 구조상태로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도전들에 대처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무장분쟁으로 어린이인명피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밝힌데 의하면 예멘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의 후과로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초현재까지 어린이사망자수가 약 1 4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군국주의부활, 해외팽창은 곧 자멸의 길이다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을 꿈꾸는 일본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난해 일본반동들은 국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헌법개정과 군비증강,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 등 군국화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광분하였다.

야스구니진자는 군국주의사상전파의 주요거점으로 되였다.

일본의 현직 각료들과 극우익국회의원들은 봄철, 가을철대제와 8.15패망일을 계기로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진자에 몰려가 참배를 한다고 분주랑을 피워댔다. 당국자는 주요계기때마다 야스구니진자에 공물을 봉납하면서 참배놀음을 선동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도의적감정에서 출발한 행사로 볼수 없다. 철두철미 군국주의부활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야스구니진자에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악명을 떨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다. 때문에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야스구니진자를 군국주의상징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한 참배를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참배하는자들의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과거의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일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외곡하고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속에 퍼뜨려 복수주의, 군국주의감정을 야기시키자는데 있다.

력사외곡책동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과거력사와 반인륜죄악을 외곡날조하고 미화분식하여 엮어놓은 력사교과서들이 검정에서 통과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교과서들에는 독도가 《일본의 령토》로 되여있는가 하면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사이비학설까지 언급되여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결되였다.》는 내용이 삽입된 대신 《성노예동원에 군이 관여했다.》는 이전의 문구는 삭제되여있다. 다른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일제의 범죄적만행자료들도 대폭 축소, 변경되였다. 이렇게 하도록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강박하였다.

아마도민족의 《우월감》과 민족배타주의, 과거죄악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된 비뚤어진 력사관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오늘 일본의 정세와 사회계에서 극우익세력들이 득세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현 집권세력은 《평화》의 너울을 쓰고 군비증강과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지난해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군사비로 랑진한 예산지출은 5조 1억 3 000만¥에 달하였다. 올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말 《마이니찌신붕》은 정부가 2017회계년도 예산에서 5조 1 000억¥을 군사비로 할당하기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군사비가 5년째 련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있는것은 그저 심상히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군사비증가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것이 곧 일본이 추구하는것이 평화인가 전쟁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는 전투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그것도 성차지 않아 군사비를 최대규모로 늘이고있는것은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 한다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미명하에 《자위대》무력을 해외의 위험한 분쟁지역들에 수시로 파견하고 활동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고있는것도 결과적으로는 전쟁국가가 되자는것이다. 일본은 2015년에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전보장관련법채택으로 일본주변으로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자위대》는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전환되였다.

군국주의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해외침략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깡그리 없애버리는것뿐이다. 이를 위해 전투력을 가질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헌법을 어떻게해서나 개악함으로써 저들의 군국화책동을 합법화하려고 악을 쓰고있다.

현 집권세력은 지난 한해동안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소리들을 자주 늘어놓았다. 지어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론의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올해 정초에만도 현 집권자는 현행헌법을 개악하려는 흉심을 수차례에 걸쳐 드러내놓았다. 일본의 력대 집권세력치고 해외침략에 미쳐날뛰지 않은자들이 없지만 지금처럼 헌법까지 뜯어고치려고 발광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사실들은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일본정객들의 광증이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완전히 분별을 잃고 군국주의마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망동으로 하여 일본의 해외침략은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첫 대상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이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대륙으로 진출하는데서 교두보, 관문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조선반도를 병탄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야망이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의 《핵, 미싸일위협》과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어론화하면서 군사적위협공갈과 제재압박에 매여달리고있다. 이것이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일본이 가는 길은 자멸의 길이다. 력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정복에 나섰던자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가를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과거 일본군국주의도 자기를 파신하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다가 종당에는 망하고말았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오늘의 조선을 어쩌보려는 시도는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째로 불도가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일제의 만고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각오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위험천만한 움직임들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멸을 재촉하는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철권

이스라엘의 공습행위 규탄

수리아정부군이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의 군사기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용기들이 디마스끄에 있는 공군기지를 목표로 여러기의 미싸일을 발사한데 대해 폭로하면서 성명은 이를 테로그루빠들에 대한 로골적인 지원책동으로, 극악한 침략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성명은 수리아군대는 테로분자들을 뒤받침해주는 세력들의 지원을 차단하고 전국적범위에서 테로조직들을 완전히 소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변함없는 미국의 세계제패야망

침략적인 무력증강

미국이 일본을 거점으로 아시아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무력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최근 아리조나주에 배비되여있던 미해병대의 《F-35B 라이트닝 2》전투기편대가 일본에 있는 이와구니기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미국은 현재 10대의 전투기를 먼저 배비한 다음 앞으로 6대를 추가배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무기판매책동

미국이 무기판매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미국방성은 군수독점체인 레이티온회사에서 생산되는 《SM-6》요격미싸일을 다른 나라들에 판매할데 대한 제안을 승인하였다.

무기판매로 돈주머니를 불구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정탐행위 강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활동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영국의 BBC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미군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대의 전투기로부터 감시활동에 써먹을 100여대의 소형무인기를 발진하는 시험을 감행하였다.

지난해 10월에도 미군은 3대의 《FA-18 슈퍼 호네트》전투기에서 소형무인기를 발진시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한다.

순항미싸일시험 강행

미국의 UPI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미해군과 레이티온군수독점회사가 2차례에 걸쳐 순항미싸일 《토마호크 블로크 4》의 시험을 강행하였다.

시험의 목적은 민감한 대상물들을 타격할수 있는 미싸일의 능력을 검사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09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